

외국인 관광객 연 1000만 시대 광주·전남 고작 30만명이라니

광역 지자체중 최하위... 대책마련 시급

외국인 관광객 연 1000만명 시대가 초입기에 들어갔지만 광주와 전남은 각각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따르면 20~21일께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1000만명째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연 1000만명 돌파를 국가적 경사로 자평하고, '관광객 1000만 시대 진입 선포식'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애초 올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를 1100만명으로 예상했으나, 현 추세라면 11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한류열풍속에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각각 30%와 19%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광공사의 설명이다.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으로 관광객 1000만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경우 경제적 효과는 2000cc급 중형차 100만대를 수출한 것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9년 781만 7000명에서 2010년 879만 7000명, 2011년 979만 5000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광주·전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광주는 2009년 13만2000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수가 2010년 22만8000명으로 잠시 증가했으나, 2011년 15만 7000명으로 하락했다.

전남지역도 2009년 13만2000명, 2010년 20만2000명, 2011년 1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각 2% 안팎만이 광주·전남을 찾고 있는 것이다.

지역 관광업계 등에선 외국인 관광객이 광주·전남을 외면하는 이유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취약 ▲불거리 부족 ▲면세점 등 쇼핑센터 부재 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전략 부재가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19일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시대인데 광주·전남을 방문한 외국인 숫자를 보면 솔직히 부끄럽다”며 “광주·전남이 힘을 합해 최소 연간 10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필요하다면 부시장 주관으로 전남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도내 시·군과 공동회의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생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軍공항 이전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먼저”

강운태 시장, 특별법 보완 주장

강운태 광주시장이 국회 국방위원회가 통과시킨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보완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광주시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김동철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건의받은 국방부 장관은 6개월 내에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정 후 2년 이내에 이전 후보지 선정 ▲

이전 방식 및 비용은 특별회계(국가예산) 방식 등을 주장한 반면, 국방위 법안은 ▲지자체에서 이전을 건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해 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기한을 명시하지 않음) ▲이전 방식 및 비용은 기부 대 양여방식 등을 골자로 통과했다.

강 시장은 “법안을 보면 국방부장관이 시한 없이 막연히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자치단체장이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면 2년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법안대로 지자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면 엄청난 비용(광주는 2~3조)을 부담해야 한다”며 “군 공항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 책임하에 국가예산(특별회계)을 확보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광주시장이 광주군공항을 전남 모 자치단체로 이전하려면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전 부지를 사들인 뒤 공항시설을 갖춰 국방부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후 국방부는 현 광주군공항 땅값을 감정평가해 광주시가 이전 공항 부지에 쓴 예산과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전남 쌀 생산량 3년만에 충남에 1위 내줘

‘불라벤’과 ‘덴빈’ 등 잇단 태풍으로 전남지역이 쌀생산량 1위 자리를 3년만에 충남에 넘겨줬다.

19일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올 쌀생산량은 70만t이며, 충남(78만4000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 쌀생산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

음이다.

이는 태풍 불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벼 이삭이 쪽정미만 남는 벼수 피해가 생긴 데 이어 10월 초에는 태풍 산마가 닥치고 일조시간도 줄어 낱알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일제 해남 옥매광산 인력 수탈 확인

강제동원위원회 실태조사, 피해자 94명 달해

일제 강점기 해남군 옥매산 광산에서 일본이 자행한 자원·인력 수탈의 실태를 보여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부당배상청구위원회 등 지원위원회는 일본이 옥매광산에서 알루미늄 원료인 명반석(明礬石)을 대량 수탈하고 그 일대에 사는 조선인을 광산 개발에 강제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아사다(淺田) 화학공업주식회사는 1924년께 옥매산에서 본격적으로 광산 개발을 시작,

명반석과 고령토, 납석 등 광물자원을 채굴했다. 이 업체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일본 정부에 의해 군수회사로 지정됐다.

위원회 우영술 조사관은 “옥매광산은 일본의 필요로 개발됐고 생산된 광물은 모두 일본으로 반출됐다”며 “수탈 흔적은 지금도 광산 곳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규모는 수백명 선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1942~1945년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 94명을 피해자로 공식 확인했다.

/연합뉴스

나로호 3차 빠르면 29일 재발사

나로호 3차 재발사가 빠르면 오는 29일께 시도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은 19일 “나로호 3차 발사 관련 기술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29일 발사 추진이 기술적으로 적합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지난 17일 러시아에서 국내로 이송된 어렵터 불록 부품의

점검을 포함해 발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양국 연구진은 지난 16일부터 나로호 발사체에 대한 전기 시험에 착수하는 등 발사 재추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 등은 오는 22일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어 준비 상황, 기상 예보, 우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발사기준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

故 김근태 의원 자전적 수기 원작

‘남영동 1985’ 광주시사회 큰 관심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남영동 1985’ 특별시사회가 19일 오후 광주극장에서 열렸다.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남영동 1985’는 신군부 체제였던 19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22일간 고문을 당했던 고 김근태 의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린 작품. 김 의원의 자전적 수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22일 정식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시사회장에는 정지영 감독과 배우 이경영, 김 의원의 아내이자 동지였던 인제대 민주통합당 의원,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8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 큰 관심을 받

영했다.

정지영 감독은 무대 인사에서 “이번 영화는 눈시울을 자극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화”라고 소개하고 “오늘 그 어느 장소에서 보나 뜨겁게 환영해준 광주 시민들의 성원으로 영화가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제대 의원은 “남편은 광주를 너무나 사랑했고, 1983년 민청학련을 창립한 이듬해 망월묘역을 찾아갔었다”며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던 김의원의 뜻처럼 민주주의의 계속 발전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

19일 광주극장을 찾은 ‘남영동 1985’의 배우 이경영씨와 민주통합당 인제대 국회의원, 정지영 감독(왼쪽부터)이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림

제73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3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윤경철 교수의 ‘백내장과 노안의 치료방법’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3일 제73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윤경철 교수의 ‘백내장과 노안의 최신 치료방법’을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안과 윤경철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백내장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이의 원인, 증상, 진단방법, 경과 및 합병증, 치료방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오는 26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주 제 : 윤경철 교수의 ‘백내장과 노안의 최신 치료방법’

■강 사 : 윤경철 안과 교수



-한국각막질환연구회
-한국외안부학회
-한국백내장질환술학회
-미국안과학회
-세계및아시아각막학회회원

■일 시 : 11월 23일(금) 오후 2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광주발전연구원 공고 2012-19호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채용 공고

광주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출연연구기관으로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고자 합니다.

2012. 11. 20

광주발전연구원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직 종	모집인원
연구직	1명
	1명

※ 중국경제 분야는 중국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2.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자격요건 및 전공적부, 경력 및 실적평가)
- 2차 전형 : 연구능력(논문발표 포함), 외국어구술Test(과학기술정책분야는 영어, 중국경제 분야는 중국어)
- ※ 논문발표의 경우 발표요령 등은 1차 합격자 공고 때 제시
- 3차 전형 : 면접(전문성과 소양 위주, 프리젠테이션 포함)
- ※ 프리젠테이션의 경우 논제와 발표시간 등은 2차 합격자 공고 때 제시

3. 시험사항 및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장 소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1차 전형	연구원 회의실	'12. 12. 26(수)	'12. 12. 28(금)
2차 전형(1차 전형 합격자 대상)	연구원 회의실	'13. 1. 9(수)	'13. 1. 11(금)
3차 전형(2차 전형 합격자 대상)	연구원 회의실	'13. 1. 16(수)	'13. 1. 18(금)

※ 1차 전형, 2차 전형, 최종 합격자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 및 합격자 발표 일정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경력증명서(이력서)와 경력과 일제 1부
-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목록 및 해당 실적물, 학위논문 각 1부
- 최종합격 논문 요약서(모집분야 A4 5매 정도) 1부
- ※ 전형의 연구실적을 중 대표적인 논문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광주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gjil.re.kr)에 게재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2. 11. 21(수) ~ '12. 12. 21(금), 31일간(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광주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광주시공무원교육원 내」 광주발전연구원 행정실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유의사항

- 응시분야를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지 바람.
- 접수된 연구실적물은 합격자 발표 후 3일 기간 동안 요청자에 한해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함.
- 2차, 3차 전형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과 보수는 본 연구원 「직제 및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의해 결정함.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발전연구원 행정실(062-940-0500)로 문의하시기 바람.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 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Han-Mi Gold

한미금거래소

금맥을 캐나라!

금거래 비즈니스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한미금거래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브랜드 골드스토어를 통해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장점

1.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2. 전문지식이 없어도 1주 본사교육으로 창업가능
3. 자금 회전이 빠르고 안전
4. 지식경제부가 승인한 '조세특례범 106조 5항'에 의거 이익 창출
5. 지역 영업권을 확실히 보장(계약서에 명시)

가맹 문의 **02)542-4611**

www.hanmigold.co.kr